

주자학과 대순사상의 수양론 비교 연구*

이 광 주

대순진리회 교무부·연구원

- | | |
|--------------|-------------|
| I. 머리말 | IV. 이상적 인간상 |
| II. 형이상학적 근거 | V. 맺는말 |
| III. 수양의 방법 | |

I. 머리말

선천(先天)은 단주(丹朱)로부터 비롯된 원(冤)들이 수천 년간 누적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반목과 쟁투를 일삼았다. 더구나 물질문명에 치우친 인류는 천리(天理)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천도(天道)와 인사(人事)의 상도(常道)를 어그러뜨리고 삼계(三界)를 혼란에 빠뜨려 도(道)의 근원을 끊어지게 하였다.¹⁾ 이에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겁액을 구천(九天)에 하소연함으로써,

* 본 논고는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인 ‘이광주, 『대순사상과 주자학의 수양론 비교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중 ‘IV. 朱子學과 大巡思想의 수양론 비교’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1)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13판), 공사 3장 4-5절, 교운 1장 9절.

이 우주를 주재(主宰) 관령(管領)하시는 구천상제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강세(降世)하시게 된 것이다. 상제께서는 1901년부터 1909년까지 천·지·인 삼계를 개혁하시기 위해 천지공사(天地公事)라는 전무후무한 대역사를 단행하셨다.

상제께서 행하신 많은 공사 중에는 세계 각 민족 문화의 바탕이 되었던 선도(仙道)와 불도(佛道), 유도(儒道), 서도(西道)의 종장(宗長)을 새롭게 임명하는 공사도 있었다.²⁾ 이때 유교의 종장으로 임명된 분이 바로 주희(朱熹; 1130~1200), 곧 주자(朱子)였다. 상제께서는 주자가 개편한 『대학』의 상장(경1장)과 그의 유지(遺志)에 의해 편찬된 『서전』의 서문을 중시하셔서 종도들에게 자주 읽도록 권하신 바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자학은 유교의 본질을 잘 담고 있는 학문이며, 그가 추구했던 이상도 상제님의 뜻과 부합하는 면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자학은 송대(宋代) 주자에 의해 집대성되고 원·명·청대에 이르는 장구한 세월 동안 관학(官學)으로 기능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학문이다. 그가 불교와 도교의 유행에 맞서 사서(四書)와 오경(五經)을 중심으로 정립해 놓은 학문적 체계와 사유의 치밀함은, 주자를 존숭해 온 사람들은 물론 그를 비판하고 새로운 학문으로 나아간 사람들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가 제시한 형이상학적 이론체계와 방법에 따라 학문을 연마하고 수양하였다. 특히 조선 시대에는 모든 학문과 사상, 정치와 문화의 중심에 주자학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13세기 이후 유교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주자학은 유교의 대표적인 학문체계였고 그 중심에 ‘수양론(修養論)’³⁾이 있

2) 같은 책, 교운 1장 65절.

3) ‘수양론(修養論)’이란 내면적 품성이나 지혜·도덕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를 말한다.(유교사전편찬위원회, 『유교대사전』, 서울: 박영사, 1990, p.800) 주자학은 물론 대순사상의 수도(修道) 또한 내면의 덕성을 함양하여 인륜을 바로 행하고 윤리도덕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주자학과 대순사상의 수양론에 관해 본문에서는 ‘수양(修養)’, ‘공부(工夫)’, ‘수행

었다.

대순사상의 수양론은 신조(信條)인 사강령(四綱領)과 삼요체(三要諦)를 중심으로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신조 외에도 포덕·교화·수도 및 의례 등 실천수행에 관한 내용이 그동안 수양론의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졌다. 최근에는 타종교의 사상이나 수행법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대순사상의 수양론이 지닌 고유한 특질을 드러내려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⁴⁾ 이 논문도 이런 연구 경향에 힘입어 주자학과 대순사상의 수양론에 관한 비교 연구를 시도한 것이다. 선행 연구 중에도 주자 수양론의 내용을 다룬 논문이 있지만 주로 대순사상의 삼요체 가운데 하나인 경(敬)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주자 수양론의 근거와 목적이란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경’의 수행법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부분적인 뜻에 치중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논문은 수양의 근거와 방법, 목적이란 체계 속에서 주자 수양론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대순사상의 수양론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주자학과 대순사상은 수양의 형이상학적 근거로서 본체론과 인성론을 가지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각각 고유의 수양론을 전개하고 있으며 분명한 수양의 목적도 있다. 먼저 II장에서는 수양의 근거로서 본체인 천(天)과 주체인 심(心)에 관한 내용을 비교하였다. III장에서는 수양의 방법으로서 주자학의 거경·격물치지와 대순사상의 신조가 각각 이성과 신앙에 기초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IV장에서는 수양의 목적인 이상적 인간상으로 주자학의 성인

(修行)’이란 용어를 문맥에 따라 적절하게 혼용해서 사용하기로 하겠다.

- 4) 진정애, 「대순사상에서의 심론 연구」(대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박마리아, 「대순진리회와 도교의 신앙체계에 관한 비교」, 『신종교연구』 24 (2011); 차선근, 「근대 한국의 신선 관념 변용」, 『종교연구』 62 (2011); 차선근, 「수운과 증산의 종교사상 비교 연구」, 『종교연구』 69 (2012); 신상미, 「대순진리회와 도교의 수행법 비교 연구」, (대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박인규, 「한국 불교 진언과 대순진리회 주문의 비교 연구」, 『대순사상논총』 22 (2014); 차선근, 「중국 초기 민간도교와 대순진리회의 종교윤리 비교연구—승부(承負)와 적(慙)을 중심으로」, 『2014東亞道文化研討會』(북경대학교 발표집, 2014) 등이 있다.

과 대순사상의 도통군자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V장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 드러난 대순사상의 수양론의 고유한 특질을 제시하였다.

II. 형이상학적 근거

1. 주자학의 이법천(理法天)과 대순사상의 인격천(人格天)

주자학과 대순사상은 수양의 형이상학적 근거로 천(天)과 심(心)을 상정하고 있다. ‘천’이 우주의 본체로서 궁극적 실재이자 근원적 원리라면, ‘심’은 수양의 주체로서 천을 깨닫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간의 중추적인 기관이다. 천에 대한 관념에서 주자학과 대순사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격신(人格神)의 존재 유무이다. 주자학의 천관은 우주의 본체로서 태극(太極)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법천’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대순사상은 태극뿐만 아니라 우주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상제님(上帝任)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격천’이 보다 중시된다.

1) 주자학의 이법천

고대 유교에서 천은 지고무상(至高無上)의 권위를 가진 상제로서 백성들의 길흉화복을 주관하고 명령을 내리며 만물을 주재하는 인격천의 개념이었다. 상제 신앙을 핵심으로 한 은대(殷代)의 종교적 신앙이 주대(周代)에 이르러 퇴조함에 따라 천은 점차 내재화된 도덕 원리로 수용되기 시작했다. 『논어』에서 공자는 천을 ‘주재자’, ‘운명’, ‘자연의 이치’로 표현했고, 맹자는 천을 인격천이 아닌 인간 본성의 원천이자 도덕적 근거로 파악하였다. 『중용』에서는 천이 인간의 성(性)과

연결되고 내재화함에 따라 본성의 실현이 곧 천지의 화육(化育)에 동참하고 천도(天道)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여겼다.⁵⁾ 이러한 공자와 맹자의 천에 대한 이해와 『중용』의 천 관념은 송대 신유학으로 이어져 우주론과 본체론을 형성하고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근거가 되었다.⁶⁾

송대 천의 개념은 도교와 불교를 허무적멸지도(虛無寂滅之道) 즉 ‘허무의 철학’으로 규정하고 무(無)를 배제한 채 유(有)로서의 본체를 확고히 하고자 했던 초기 성리학자들에 의해 정립되었다.⁷⁾ 도학의 개조(開祖)로 평가받는 주돈이와 장재, 정호, 정이 등은 이 세계의 본체를 ‘무극’·‘태극’과 ‘태허(太虛: 氣의 본체)’ 및 ‘천리(天理)’로써 새롭게 부각시켰다. 주자는 이들의 사상을 특히 정이(程頤)를 중심으로 집대성하여 리(理)와 기(氣)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심화하고 발전시켰다. 여기서 ‘리’는 사물을 생성하는 근원이자 본체로서 형이상(形而上)의 도(道)이고, ‘기’는 사물을 생성하는 재료이며 형상이 있기 때문에 형이하(形而下)의 기(器)라고 한다. 모든 현상적 존재는 ‘리’와 ‘기’를 공유하고 있는데, ‘리’를 가짐으로써 그 존재의 성(性)이 있게 되고 ‘기’를 가짐으로써 형(形)이 갖추어지는 것이다.⁸⁾ 이 양자는 시간적으로 선후가 없고 공간적으로 이합(離合)이 없이 하나의 양태로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세계는 이기이원(理氣二元)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일원적(一元的)이라 할 수 있다.⁹⁾

주자가 저술한 「대학장구서(大學章句序)」와 「중용장구서(中庸章句序)」에는 ‘기’를 통해 드러난 ‘리’의 의미가 잘 제시되어 있다. ‘계천입극(繼天立極)’이란 표현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자연의 이법[天道]을 계승하여 인간의 표준[人極]을 세운다는 뜻이다.¹⁰⁾ 이에 대해 주자는

5) 최정락, 「다산 정약용의 상제사상 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pp.9-15 참조.

6) 박중하, 「주자의 본체관에 대한 연구」(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p.14.

7) 장원목, 「성리학 본체론의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22 (2003), pp.385-386 참조.

8) 김교빈, 「본체론과 심성론을 통해 본 주자의 격물치지이해」, 『동양철학연구』 6 (1985), p.177.

9) 변원중, 『주자학과 육왕학』(피주: 한국학술정보, 2008), pp.242-243.

“천하의 사물에는 반드시 각각 ‘그러한 바의 까닭[所以然之故]’과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바의 법칙[所當然之則]’이 있으니 이른바 ‘리’이다.”¹¹⁾라고 하였다. 이 소이연(所以然)과 소당연(所當然)은 각각 존재 원리와 당위원리를 뜻하는 것으로서, 자연법칙과 인륜도덕이 모두 하나의 ‘리’에서 통일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주자학에서 ‘리’는 수양의 형이상학적 근거이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본체로서의 천이다. 주자는 이러한 일리(一理)가 곧 ‘태극’임을 밝히면서 “이른바 태극이란 천지 만물의 ‘리’를 합하여 하나로 이름 붙인 것일 뿐이다.”¹²⁾라고 하였다. 그리고 ‘태극’이란 표현 앞에 ‘무극’이란 수식어를 덧붙여 우주 만물의 본체가 ‘형체는 없되 이치가 있음[無形而有理]’을 강조하였다.¹³⁾ 이처럼 주자학에서 ‘천’은 우주 만물의 본체인 태극이며, 하나의 ‘리’라는 점에서 ‘이법천’인 것이다.

2) 대순사상의 인격천

주자학의 본체론적 근거가 이법천으로서의 태극과 ‘리’라면, 대순사상의 본체론적 근거는 인격천이신 상제님과 이법천인 대순(大巡)과 원(圓), 무극, 태극이다. 대순사상에서는 구한말에 인신(人身)으로 강세하신 강증산(姜甌山; 1871-1909) 성사(聖師)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상제께서는 구천대원조화주신(九天大元造化主神)으로서, 가장 높은 위(位)인 구천(九天)에 임하셔서 우주 삼라만상을 삼계대권으로 주재 관령하시며 관감만천(觀鑑萬天)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느님이시다.¹⁴⁾ 상제께서는 삼계(三界: 天·地·人)를 둘러보시고 전무후무한 진리의

10) 이상익, 『주자학의 길』 (서울: 삼산, 2007), p.161.

11) 『大學或問』, 經1章條, “至於天下之物, 則必各有所以然之故, 與其所當然之則, 所謂理也.”

12) 『朱子大全』, 권78, “所謂太極云者, 合天地萬物之理而一名之耳.”

13) 『朱子語類』, 권94-8, 「周子之書」, “無極而太極, 只是說無形而有理. 所謂太極者, 只二氣五行之理, 非別有物爲太極也.” 又云: “以理言之, 則不可謂之有; 以物言之, 則不可謂之無.” (권94-8에서 ‘8’은 94권의 제8조목을 나타낸 것이며, 이하 동일한 뜻이다.)

14)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pp.6-7.

도를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대순진리(大巡眞理)이다. 도전님께서서는 “대순이란 막힘없이 둥근 것입니다. 둥글다는 것은 무극이며, 근본의 자리요, 걸릴 것 없이 통하는 것입니다.”¹⁵⁾ “무극이 태극이요, 태극이 무극이다. 태극이 무극에서 나왔다는 것이 아니다. 전 우주의 모든 천지일월이라든지 삼라만상의 진리가 대순, 태극의 진리이다.”¹⁶⁾ 라고 하셨다. 이처럼 대순사상에서 우주 자연의 법리인 태극은 유일무이한 진리로서 지극한 ‘리’가 그 속에 실려 있고 지극한 ‘기’가 행하게 되는 바이며, 지극한 ‘도’가 나오는 근원이라 하겠다.¹⁷⁾

그렇다면 대순사상에서 인격천이자 주재천(主宰天)이신 상제님과 이법천인 무극·태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단서는 도주님(道主任)의 명(命)으로 도전님(都典任)께서 1956년에 발행하신 『태극도통감』에서 찾을 수 있다.

道之謂道也者는 定而无極하고 動而太極하야 太極이 生兩儀하고 兩儀生四象하고 四象이 生八卦하나니 太極之理生生之數는 無盡無量하야 變通造化之功德을 不可思議일새 惟我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 管領主宰 太極之天尊이시라.¹⁸⁾

여기서 구천상제께서는 기동작용의 묘리(妙理)가 지극히 현묘하고 무궁무진한 태극을 주재하고 관령하시는 ‘천존(天尊)’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대순진리회 「주문(呪文)」의 봉축주(奉祝呪)에 ‘무극신(無極神)’이란 표현이 있다.¹⁹⁾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상제께서는 지대지성(至大至聖)한 삼계의 지존으로서 지리(至理)와 지기(至氣)와 지

15)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도전님 훈시」, 『대순회보』 11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p.2. 대순사상에서 ‘대순(大巡)’의 의미는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본체를 뜻하는 경우와 삼계대순(三界大巡) 개벽공사(開闢公事)를 뜻하는 경우가 있다.

16) 1991년 1월 3일 우당 훈시, 『훈시』 (대순진리회 내부 자료)

17) 여주본부도장 포정문(布正門) 옆의 글 중에서.

18) 『태극도통감(太極道通鑑)』 (부산: 태극도본부, 1956), p.5.

19) 「주문」, 봉축주, “무극신(無極神) 대도덕(大道德) 봉천명(奉天命) 봉신교(奉神敎) 도문소자(道門小子) 소원성취(所願成就)케 하옵소서.”

도(至道)의 근원인 무극·태극을 주재하고 관령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 곧 상제께서는 ‘무극신’이자 ‘태극지천존(太極之天尊)’으로서 삼계를 통찰하고 지극한 운화(運化)를 조련(調練)하심으로써 무한무량한 세계를 다스리는 천존이시다.²⁰⁾ 그러므로 상제님은 우주 자연의 법리인 태극의 이치를 천지에 구현하고, 천지 운행의 질서인 도수(度數)²¹⁾를 조정하고 새롭게 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신봉(信奉)되고 있다. 상제님의 종통을 계승하신 조정산(趙鼎山) 도주께서는 일반 도인들이 상제님의 진리를 믿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리체계와 법방을 정립하셨다. 이러한 도주님의 진법은 유명(遺命)으로 종통을 계승하신 박우당(朴牛堂) 도전님께 고스란히 이어져 오늘날 대순진리회의 조직체계와 수행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순사상의 수행은 인격천이신 상제님에 대한 신앙을 기반으로 이법천인 대순, 곧 태극의 진리를 심수덕행(心修德行)해 나가는 데 있는 것이다.

주자학과 대순사상은 모두 수양의 본체를 ‘천’에 두고 있다. 주자학의 이법천인 ‘리’는 모든 만물을 형성하고 있는 ‘기’에 내재해 있으며, 기품의 차이에 따라 개별 사물의 성(性)은 다르지만 그것이 가진 ‘리’는 동일하다고 본다. 그래서 주자학의 수양은 거경과 궁리에 의해 자신의 본성을 함양(涵養)하고 만물에 내재한 ‘리’를 탐구함으로써 내 마음의 본체와 우주의 본체를 합일시켜 성인(聖人)의 경지에 도달하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대순사상의 인격천이신 상제께서는 우주의 본체인 태극의 기동작용을 주재 관령하시는 삼계의 지존이시다. 대순사상의 수양은 이러한 상제님 주재하의 인간임을 자각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래서 모든 수행의 중심에는 항상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나의 심신을 적중케 하려는 경천(敬天)의 정신이 자리하고 있다.

20) 『대순진리회요람』, p.8.

21) 우주 운행의 원리로서,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법방(法方)이 적절한 시기에 이르면 일정한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절차이자 프로그램을 말한다. 또한 어떠한 일을 완성하거나 이루는 데 필요한 기간과 그 일의 시작과 끝이 되는 시점이란 뜻도 포함하고 있다.

우주의 본체인 태극의 진리는 상제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이것을 도주님과 도전님께서서 일반 도인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수도의 법방과 체계로 마련해 놓으셨다. 이러한 사실을 신봉하는 도인들은 상제님의 가르침에 따라 태극의 진리, 곧 ‘대순진리’를 실천 수행함으로써 천지신명과 합일을 이룬 도통군자(道通君子)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2. 주자학의 이성적 주체와 대순사상의 신앙적 주체

주자학과 대순사상은 몸과 마음이 상호 유기적으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수양의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그 몸을 다스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마음이므로 수양의 주체는 ‘심(心)’인 것이다. 주자학에서 마음은 텅 비어 신령한 존재로서 사사물물의 ‘리’를 지각할 수 있다. 이러한 지각능력에 의해 천리를 구하고 자신의 명덕(明德)을 밝히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성적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대순사상의 마음도 천도(天道)를 깨달을 수 있는 지각능력이 있고 우주의 중심이자 신인(神人)이 조화(調化)할 수 있는 심체(心體)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상제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대순사상의 마음은 ‘신앙적 주체’라고 하겠다.

1) 주자학의 이성적 주체

주자학에서는 이기론과 심성론을 통해 심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주자는 “성은 태극과 같고 심은 음양과 같다.”²²⁾라고 하였다. 음양[氣]을 떠나 태극[理]이 존재할 수 없듯이 마음을 떠나 별도로 성이 존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심과 성은 엄연히 별개의 존재이기 때문에

22) 『朱子語類』 권5-28, 「性理2」, “性猶太極也, 心猶陰陽也。太極只在陰陽之中, 非能離陰陽也。然至論太極, 自是太極; 陰陽自是陰陽。惟性與心亦然。所謂一而二, 二而一也。”

주자는 이를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一而二, 二而一]”인 관계라고 하였고, “성은 곧 마음이 가지고 있는 바의 ‘리’이고, 심은 곧 ‘리’가 모인 곳이다.”²³⁾라고 하였다. 그는 이 심을 ‘기지정상(氣之精爽)’²⁴⁾이라 하여 ‘기’ 가운데서도 가장 깨끗하고 밝은 ‘기’로 여겼다.

주자는 인간의 마음은 하나일 뿐이며, 일신(一身)을 주재하고 사물에 명령을 내리는 주체적인 존재라고 보았다. 이 마음이 비록 ‘기’ 중에서 깨끗하고 신령한 것이지만 형이상자인 성(性)에 비하면 약간 자취가 있다. 하지만 성은 스스로 발현할 수 없고 마음의 지각과 감정, 의지 등의 작용에 의해서만 발현될 수 있다. 성이 마음의 작용을 통해 발현된 것을 정(情)이라 하는데, 주자학에서 심·성·정의 이러한 관계를 해명한 것이 이른바 ‘심통성정론(心統性情論)’이다.²⁵⁾ 여기서 통(統)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겸하다[兼]’, ‘포함하다[包]’의 뜻으로, 마음이 본체로서의 성과 작용으로서의 정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심의 미발(未發)이 성으로서 체(體)라면, 이발(已發)은 정으로서 용(用)에 해당하므로, 성과 정은 곧 마음의 두 가지 국면[體用]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심통성정은 혼란한 심이 미발과 이발 혹은 정(靜)과 동(動)에 걸쳐 있음을 말해준다. 다른 하나는 ‘주재하다[主宰]’, ‘관섭하다[管攝]’의 뜻으로, 마음이 ‘성정’을 주재하고 운용하며 관섭하는 주체라는 것이다.²⁶⁾ 이에 대해 주자는 병사들을 거느릴 때의 통(統)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성과 정을 주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음이 성과 정을 포함하고 주재하므로, 주자학에서는 심에 의한 성의 온전한 발현이 수양론의 관건이 된다. 인성(人性)에는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이 있지만, 현실적 인간은 기질을 떠나서 성을 논할 수 없으므로 기질지성만이 문제가 된다. 주자는 마음

23) 같은 책, 권5-47, 「性理2」, “性便是心之所有之理, 心便是理之所會之地.”

24) 같은 책, 권5-28, 「性理2」, “心者, 氣之精爽.”

25) 이상익, 앞의 책, pp.77-78.

26) 김우형, 『주희 철학의 인식론』 (서울: 심산, 2005), pp.152-153; 황금중, 「주자의 공부론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p.99 참조.

의 본체인 명덕이 하늘에서 주어졌으므로 허령불매(虛靈不昧)²⁷⁾하여 온갖 이치를 갖추고 만사에 응할 수 있지만 기품의 구애와 물욕의 가림에 의해 때때로 어둡게 된다고 하였다.²⁸⁾ 성은 본래 순선(純善)하지만 청탁수박(淸濁粹駁)한 기질의 영향을 받으면 그 순선함이 온전히 구현될 수 없다. 이러한 기질적 제약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마음에 ‘리’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즉, ‘리’를 지각하고 그 ‘리’에 맞게 몸을 주재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마음 때문이다.²⁹⁾ 사람이 천지의 중앙에 자리하여 만물의 영장이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³⁰⁾

주자는 일신의 주재인 심을 『서경』에 의거해 도심(道心)과 인심(人心)으로 구분하였다.³¹⁾ 마음의 허령지각(虛靈知覺)은 하나일 뿐이지만 인심은 ‘형기(形氣)의 사사로움’에서 생기고 도심은 ‘성명(性命)의 바름’에 근원하여 그 지각하는 바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도심이 인간 본성에 근원하여 순선하다면 인심은 기질의 사사로움에서 비롯하므로 선(善)할 수도, 불선(不善)할 수도 있어 위태롭다. 천인합일은 기질의 제약에서 비롯된 인욕의 사사로움을 극복하고 인심이 도심의 주재를 받아 ‘심’과 ‘리’가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주자학에서 인간이 우주의 본체인 ‘리’를 지각하여 본성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이성적 주체인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2) 대순사상의 신앙적 주체

27) 마음이 공허하고 고요하여 흔들리지 않고 신령(神靈)하여 사물에 감통(感通)하여 어둡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 없다는 뜻으로 하늘에서 받은 밝은 덕성[明德]의 체용(體用)을 형용한 용어. 한국고전용어 편찬위원회, 『한국고전용어사전』 5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28) 『大學』經1章, 朱子註, “明德者, 人之所得乎天, 而虛靈不昧, 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 但爲氣稟所拘, 人欲所蔽, 則有時而昏.”

29) 이상익, 앞의 책, p.112.

30) 『朱子大全』, 권77, 「存齋記」, “人之所以位天地之中, 而爲萬物之靈者, 心而已矣.”

31) 『書經』, 「虞書·大禹謨」, 15章,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대순사상에서 신조인 사강령과 삼요체는 대순진리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조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바로 ‘마음’에 관한 부분이다. 대순진리를 신봉하는 도인들이 일상생활의 규범으로 삼고 있는 훈회(訓誨)와 수칙(守則)에도 이 마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 마음이 갖는 위상과 관련하여 상제께서는 천지의 중심이 마음이며, 동서남북의 사방과 몸이 모두 마음에 의지한다고 하셨다.³²⁾ 또한 하늘의 작용과 땅의 작용, 사람의 작용이 모두 마음에 달려 있고, 귀신이 드나들며 용사하는 중추적인 기관도 이 마음이라고 하셨다.³³⁾ 인간뿐만 아니라 사람을 낳고 쓰는 천지조차도 그 작용의 중심에는 항상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³⁴⁾ 선신(善神)을 본받고 악신(惡神)을 고칠 수 있는 마음의 기능과 작용은 심지어 천지보다 더 클 수도 하다. 이처럼 대순사상에서 마음은 일신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의 중추가 되며, 인간을 둘러싼 모든 자연환경과 신명이 의지하고 조화할 수 있는 ‘심체(心體)’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대순사상에서는 이 마음을 양심(良心)과 사심(私心)으로 구분하며, 사심을 버리고 본심인 양심의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대순지침』에 “내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했을 때 도통에 이른다.”³⁵⁾고 명시해 놓았다. 즉, 수도의 목적인 도통은 수심연성(修心煉性)하고 세기연질(洗氣煉質)하여 천성(天性) 그대로의 본심인 양심을 회복했을 때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대순사상에서는 무자기를 바탕으로 심령(心靈)을 통일하여 일심(一心)이 되고자 한다. 이때 일심은 심체 고유의 기능과 작용이 온전히 발휘되는 경지를 말

32) 『진경』, 교운 1장 66절, “天地之中央心也 故東西南北身依於心”

33) 같은 책, 행록 3장 44절, “天用雨露之薄則必有萬方之怨 地用水土之薄則必有萬物之怨 人用德化之薄則必有萬事之怨 天用地用人用統在於心 心也者鬼神之樞機也門戶也道路也 開閉樞機出入門戶往來道路神 或有善或有惡 善者師之惡者改之 吾心之樞機門戶道路大於天地”

34) 같은 책, 교법 3장 47절, “事之當旺在於天地 必不在人 然無人無天地 故天地生人用人 以人生 不參於天地用人之時 何可曰人生乎”

35)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p.38.

하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상제님에 대한 신앙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대순사상의 수행은 나의 심기(心氣)를 바르게 하고, 나의 의리(義理)를 세우고, 나의 심령(心靈)을 구하여 상제님의 임의에 맡기는 것이다.³⁶⁾ 그래서 포덕·교화·수도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는 ‘영시(永侍)의 정신’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나의 심신이 상제님의 말씀에 적중토록 노력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대순사상에서 마음은 상제님에 대한 신앙을 토대로 천·지·인·신이 의지하고 만물과도 조화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양의 주체이자 신앙적 주체라고 하겠다.³⁷⁾

주자학과 대순사상에서 수양의 주체를 마음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주자학의 경우 명덕으로서의 마음은 텅 비고 신령하여 어둡지 않고[虛靈不昧] 온갖 이치를 갖추고 만사에 응하는 것으로서, ‘성’과 ‘정’을 주재하고 지각(知覺)하는 능력이 있다. 사람이 기품의 구애와 형기의 사사로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본성을 밝혀 지선(至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도 모두 마음의 지각과 주재 능력 때문이다. 이처럼 주자학에서 인간이 정통(正通)한 ‘기’인 심을 지녔다는 것은 우주에서 기질변화에 의한 공부 가능한 유일한 존재로 보고 있음을 말해준다.³⁸⁾ 대순사상에서도 인간이 기질을 변화시켜 본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이 마음 때문이다. 일찍이 상제께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뱃속에 출입케 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리니”³⁹⁾

36) 『전경』, 교운 2장 41절, 「포유문(布諭文)」, “幸於此世 有無量之大道 正吾之心氣 立吾之義理 求吾之心靈 任上帝之任意 洋洋上帝在上 浩浩道主奉命 明明度數 無私至公 引導乎 無量極樂 五萬年清華之世”

37) 일찍이 도주님께서 「포유문」에서 대순진리를 수행하는 첩경(捷徑)이 지극한 보배인 ‘심령’을 구하는 데 있음을 밝히신 바 있다. 이때 ‘심령을 구한다’는 것은 ‘심령의 통일’과 그 의미가 상통한다는 점에서 곧 정신통일에 의해 나의 심(心)과 영(靈)을 하나로 통(通)하게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제님의 유지(遺志)와 도주님의 유법(遺法), 도전님의 유훈(遺訓)을 받들어나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일체의 사리사욕을 물리치고 무욕청정한 경지에 이르면 마음이 순일해져 심과 영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다. 이에 의해 신인의 조화와 합덕이 가능해지고, 천·지·인의 작용이 그것에 의지하는 ‘심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38) 황금중, 「주자의 공부론 연구」, p.86.

39) 『전경』, 교법 3장 4절.

라고 하셨듯이, 대순사상에서는 신명이 용사하고 드나들며 왕래하는 길인 마음을 통해 체질과 성격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이 마음은 우주의 중심으로서 천·지·인이 이것에 의지해 용사하고 신인이 조화할 수 있는 심체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주자학의 지각주체로서의 ‘심’과는 달리, 대순사상의 마음은 인간의 기질적인 변화는 물론 우주적인 변화도 가능케 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주자학에서 마음은 본래 하나일 뿐이지만 인심과 도심의 다름은 지각하는 바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주자 수양론은 거경에 의해 인심이 도심의 주재 하에 있도록 하고, 격물을 통해 사물의 이치를 궁구함으로써 천리와의 합일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공자가 말했듯이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좇아도 법도를 어기지 않는 천인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⁴⁰⁾ 이에 비해 대순사상은 마음을 양심과 사심으로 구분하고 물욕에 의해 발동하는 욕심인 사심을 불선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사심을 버리고 천성 그대로의 본심인 양심의 회복을 수양의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그 중심에는 항상 대월상제(對越上帝)의 영시(永侍)의 정신을 권권복옹(拳拳服膺)하는 상제님에 대한 신앙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대순사상은 무자기와 상제 신앙을 주요한 축으로 삼아 양심을 회복하고, 무욕청정의 경지에서 신인이 조화하고 합일된 도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주자학의 심성론과는 차이가 있다.

Ⅲ. 수양의 방법

주자학은 수양의 방법으로 거경(居敬)과 격물치지(格物致知)가 있고, 대순사상은 신조(信條)의 사강령과 삼요체가 있다. 주자학에서 거경과 격물치지는 허령불매하고 지각능력을 갖춘 마음에 근거하여 천리와의

40) 『論語』, 「爲政」,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합일을 추구하므로 ‘이성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대순사상의 신조인 사강령과 삼요체는 상제님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두고 대순진리를 실천 수행하여 인간완성을 이루고자 하므로 ‘신앙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1. 주자학의 이성적 방법: 거경과 격물치지

주자학에서 학문의 목표는 내성외왕(內聖外王)을 이룬 성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적인 인간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질의 제약에서 벗어나 본연의 ‘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자는 ‘심’에 관한 공부인 거경과 ‘리’에 관한 공부인 격물치지를 수양의 두 축으로 삼고 있다. 『중용』의 존덕성(尊德性: 덕성을 높임)과 도문학(道問學: 묻고 배움에 말미암음)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가지 공부는 상호 보완적이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심’과 ‘리’의 완전한 합일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계를 주자는 사람이 두 발로 걷는 것에 비유하며 거경과 공리의 공부가 한 가지 일임을 강조한 바 있다.⁴¹⁾ 만일 궁리(窮理)하지 않으면 도리를 볼 수 없고 지경(持敬)하지 않으면 도리를 보아도 흠어져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경공부를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되는 본령공부(本領工夫)로서 중시하였다.

거경의 방법으로 주자는 주일무적(主一無適), 정제엄숙(整齊嚴肅), 상성성(常惺惺)을 제시하였다. 먼저 ‘주일무적’은 잡념이나 사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신을 하나에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부는 일이 없을 때는 마음의 안정과 집중을 유지케 하고,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에 전념하여 적절히 대처하게 해준다. ‘상성성’은 마음을 항상 또렷하게 깨어있도록 함으로써 본심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주자는 “사람은 오직 하나의 마음이 있어 주재자가 되니 항상 환성(喚聲)해야 한

41) 『朱子語類』, 권9-18, 「學3」.

다.”⁴²⁾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제업숙’은 옷매를 단정히 하고 몸가짐을 엄숙히 하여 경거망동하지 않는 공부이다. 주자는 외적인 단속을 철저히 함으로써 내적 순일(純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정제업숙을 경으로 들어가는 입문처이자 하학(下學)의 공부처로 중시했다.⁴³⁾ 주일무적과 상성성이 마음가짐과 관련한 내면의 공부라면, 정제업숙은 몸가짐과 관련한 외면의 공부이지만 실제로는 내외를 나눌 수 없는 하나의 공부일 뿐이다.⁴⁴⁾ 이러한 공부를 골격으로 일상생활에서 쇄소응대(灑掃應對)⁴⁵⁾·효제(孝悌)와 같은 소학(小學)의 공부를 겸하는 것이 바로 ‘거경’이다.

거경은 마음의 미발시에는 존양(存養: 涵養)의 형태로, 이발시에는 성찰(省察)의 형태로 나타난다. 마음의 동정과 미발·이발 사이에 틈새가 없듯이 경공부도 양자 사이에 틈새가 없다. 미발시에는 고요함 속에 지각함과 주재함이 있고, 이발시에는 움직임 속에 일에 따라 살피며 절도를 찾는 고요함이 있다. 그래서 본령공부인 경(敬)을 투철하게 공부하면 미발시에는 마음이 고요해지고 이발시에는 중절(中節)을 얻게 된다. 이처럼 마음은 한순간도 공부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주자는 거경 공부가 마음의 주체의식을 보존하고 기쁨으로써 격물의 탐구와 실천적 역행을 가능케 한다고 보았다.⁴⁶⁾ 이때 미발공부와 이발공부는 각각 ‘경’의 체와 용에 해당하므로, 미발시의 존양공부가 근본이 되어야 이발시의 성찰공부도 원활해진다.

도문학인 격물치지론은 주자가 『대학』에 「격물보망장(格物補亡章)」을 만들 정도로 심혈을 기울인 이론체계이다.⁴⁷⁾ 여기서 그는 ‘격물(格物)’을 ‘사물에 즉하는 것[卽物]’, ‘리를 궁구하는 것[窮理]’, ‘지극한 데까지 이르는 것[至極]’ 등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사람의 마음은 중

42) 『朱子語類』, 권12-20, 「持守」, “人惟有一心是主, 要常常喚醒.”

43) 이강대, 『주자학의 인간학적 이해』 (서울: 예문서원, 2000), p.167.

44) 황금중, 「주자의 공부론 연구」, p.159.

45) 물을 뿌리고 비질을 하며 뒷사람의 부름에 응답하는 일.

46) 김우형, 앞의 책, p.180.

47) 변원중, 『주자학의 형성과 논변의 사유구조』 (과주: 한국학술정보, 2007), p.77.

리(衆理)를 갖추고 있어서 만사만물에 내재한 ‘리’를 인식할 수 있다. 이때 격물치지는 사물의 ‘리’를 궁구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본성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사물에 나아가 이미 알고 있는 ‘리’로 말미암아 더욱 궁구하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활연관통하여 모든 사물의 표리정조(表裏精粗)⁴⁸⁾와 내 마음의 전체대용(全體大用)⁴⁹⁾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즉, 주자는 격물공부에 의해 분수지리(分殊之理)를 터득해 나가면 내 마음의 본체와 상응하는 리일지리(理一之理)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의해 인육을 물리치고 허령불매한 심의 본체를 회복하면 중화(中和)를 실현한 성인의 경지에 이르러 천지를 바로 세우고 만물의 화육에도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⁵⁰⁾

이러한 궁리(窮理)공부의 필요성은 기질변화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타고난 기질을 학문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것의 주요한 방법이 『대학』에서 제시한 격물치지이다. 격물이 만물을 따라서 궁구해 가는 것이라면 치지는 미루어 점차 넓혀 가는 것이다.⁵¹⁾ 이때 물(物)의 범위는 세상의 모든 사물을 포함할 만큼 광범위하지만, 주자에게서 그것은 주로 가까운 일상의 도리와 성인들이 남긴 경전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궁리는 독서와 당면한 사태 및 현상에 대한 체험적 탐구를 통해 사사물물의 이치를 탐구함으로써 천리와 내 마음의 전체대용을 밝히려는 공부이다. 이러한 공부가 누적되면 본래 거울처럼 밝은 마음의 지(知)가 자신을 가리고 있던 어둠을 닦아서 사방으로 밝게 비추지 못하는 곳이 없게 된다.

『대학』의 팔조목(八條目) 가운데 격물치지가 지선(至善)의 소재를 알기 위한 것이며, 성의정심(誠意正心)부터 평천하(平天下)까지

48) 물체의 겉과 속 또는 안과 밖, 그리고 정밀한 것과 거친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

49) 전체(全體)라는 것은 마음의 본래 상태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 마음의 본질은 일성(一性)이 혼연하여 도덕성이 충만한 중(中)과 대본(大本)의 상태이다. 그리고 대용(大用)은 마음이 세계와 원활하게 감응하고 소통하면서도 본래의 절도를 잃지 않는 상태에서 인(仁)을 실현함을 뜻한다. 홍성민, 「朱子 수양론의 구조와 실천적 성격」(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p.61.

50) 『中庸章句』, 1章,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51) 『朱子語類』, 권15-43, 「大學2」, “格物, 是逐物格將去; 致知, 則是推得漸廣.”

는 지선에 도달하여 머물고자 함이다.⁵²⁾ 특히 성의(誠意)는 격물치지와 함께 범인과 성인을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관문이다. 주자는 이것을 무자기(毋自欺: 스스로 속이지 않음)로 설명하면서 악취를 싫어하고 여색을 좋아하듯이 군자는 표리(表裏)가 일치하고 신독(慎獨)해야 함을 강조했다.⁵³⁾ 선(善)을 실천하고 악(惡)을 제거함에 스스로 속임이 없어야 탁박한 기질을 청수한 기질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무자기에서 ‘자기(自欺)’란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해야 함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⁵⁴⁾ 이는 남은 모르고 자신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자는 홀로 있을 때 그 기미를 살펴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⁵⁵⁾ 이런 공부 후에야 정심과 수신이 가능하므로, 주자학에서 ‘성의’는 자기 수행의 으뜸이 되는 관문이라 하겠다.

2. 대순사상의 신앙적 방법: 사강령과 삼요체

대순사상의 신조는 사강령(四綱領)인 안심·안신·경천·수도와 삼요체(三要諦)인 성·경·신으로 이뤄져 있다. 이 신조의 항목들 근처에는 항상 상제님에 대한 신앙이 자리하고 있다. 대순사상의 수양론은 이러한 신앙에 입각하여 수도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먼저 사강령 가운데 안심(安心)과 안신(安身)은 대순진리를 수행하기 위해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나타낸 것으로 이율령(二律令)의 위상을 지닌다. ‘안심’이 편벽됨과 사사(私邪)됨이 없이 진실한 본연의 양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안정케 하는 것이라면, ‘안신’은 안심을 바탕으로 모든 행동을 법례(法禮)에 합당케 하고 도리에 알맞게 하

52) 『大學或問』, 經1章, “格物致知, 所以求知, 至善之所在 自誠意以至於平天下, 所以求得夫至善而止之也.”

53) 『大學章句』, 傳6章, “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 如惡惡臭, 如好好色, 此之謂自謙, 故君子, 必慎其獨也.”

54) 같은 책, 傳6章, 朱子註, “誠其意者自修之首也. 毋者禁止之辭, 自欺云者知爲善以去惡, 而心之所發有未實也.”

55) 『中庸章句』, 1章, 朱子註, “獨者, 人所不知而已所獨知之地也.”

는 행위적인 측면을 가리킨다. 그리고 ‘경천’은 상제님 받드는 마음을 자나 깨나 잊지 않고 항상 공경과 정성을 다하는 것을 말하며, ‘수도’는 마음과 몸을 침착하고 잠심(潛心)하여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는 정신을 단전(丹田)에 연마하여 영통(靈通)의 통일을 목적으로 지성으로 봉축(奉祝)하는 것이다.⁵⁶⁾

삼요체는 신앙의 대상이신 상제님과 도(道)에 대한 믿음[信]을 바탕으로 정성[誠]과 공경[敬]을 다하여 대순진리를 실천 수행함으로써 인간완성을 이뤄나가는 것이다. 일찍이 도전님께서서는 “자각이 없으면 확신이 서지 않는다.”⁵⁷⁾고 하셨다. 상제님과 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바르게 수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모든 일이 내심의 소정(所定)에 따라 몸으로 표현되는 법인데,⁵⁸⁾ 믿음이 부실한 상태에서 한결 같이 상제님을 받들며 수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순진리회 도인들은 연운(緣運)에 따라 사사상전(師師相傳)으로 맺어져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입장에서 대순진리를 연구하며 ‘도’에 대한 확신을 키우고 있다. 특히 대순진리는 신도(神道)로서 천도(天道)가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그대로 실현되는 우주 자연의 법리이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도리(道理)에 대한 탐구와 함께 법방(法方)에 의한 수행에 성·경·신을 다해야만 한다.

신조에 의한 수도는 넓은 의미에서 대순진리회 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를 뜻하나, 좁은 의미로는 공부·수련·기도와 같은 몇몇 의례만을 뜻하기도 한다.⁵⁹⁾ 하지만 이런 구분에 상관없이 수도의 중심에는 항상 상제님에 대한 ‘경천’의 정신이 자리하고 있다.⁶⁰⁾ 그래서 수도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상제님의 말씀과 행적이며, 여기에 나의 심신을 적중케 하는 것이 바른 수행이다. 이를 위해 상제님의 언행이

56) 『대순진리회요람』, pp.15-16.

57) 『대순지침』, p.53.

58) 같은 책, p.52.

59) 차선근, 「대순진리회 수행 연구의 경향과 과제」, 『대순사상논총』 24-1 (2014), p.329 참조.

60) 『대순진리회요람』, p.15. “모든 행동(行動)에 조심(操心)하여 상제님(上帝任) 받드는 마음을 자나 깨나 잊지 말고 항상(恒常) 상제(上帝)께서 가까이 계심을 마음속에 새겨 두고 공경(恭敬)하고 정성(精誠)을 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록된 『전경』을 많이 읽고 이를 실천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기도나 수련, 공부 시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는 영시(永侍)의 정신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심고(心告) 드리는 자세를 견지해 나간다. 이처럼 대순사상의 수도는 상제님에 대한 신앙을 토대로 심령(心靈)을 통일하기 위한 심적 기도와 수행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상제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지극한 기운과 덕화에 힘입어 자신을 위한 수도와 타인을 위한 포덕과 교화에 매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인들은 상제님의 유지(遺志)인 광구천하와 광제창생의 대의(大義)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주자학과 대순사상의 수양론에서 먼저 거경과 안심, 안신의 내용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주자학과 대순사상 모두 마음의 안정과 집중을 통해 사리사욕을 물리치고 공명정대한 인성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거경이 자신의 본성을 함양하고 예법에 합당케 함으로써 천리와의 합일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안심·안신은 몸과 마음의 안정을 바탕으로 신앙의 대상이신 상제님의 말씀에 자신의 심신을 적중케 하는 것이다. 또한 주자 수양론에서는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르는 미발의 공부가 근본이 되어야 이발의 공부가 원활해진다. 대순사상은 주자학처럼 마음의 미발과 이발 혹은 동정(動靜)에 따른 공부를 별도로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대순사상의 수행에서도 안심과 안신을 바탕으로 한 경천의 공부가 중심이 되어야 수도와 사업이 원활해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거경은 오직 인간 내면의 주체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공부인데 반해, 안심과 안신은 내면의 주체적인 노력에 따라 상제님의 덕화와 신명의 도움이 함께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거경 가운데 정제업숙은 언행과 용모를 도리와 예법에 알맞게 하는 외면의 공부를 통해 내면을 바르게 하는 공부이다. 사강령의 안심과 삼요체의 경은 심신의 움직임을 받아 일신상 예의에 알맞게 행하며 의리와 예법에 맞지 않는 허영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공부이다.⁶¹⁾ 이처럼 주자학의 정제업숙과 대순사상의 안심과 경은 모두 인륜도덕

을 바르게 행하고 예법에 알맞은 처신을 함으로써 내면을 바르게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하지만 『주자가례』, 『소학』, 『의례경전통해』 등의 예서(禮書)에서 보듯이 주자학에서 예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절차들이 요구된다. 이런 예법들이 시대상황과 지역문화에 맞지 않아 여러 가지 폐단을 초래하기도 하였고 마음 수양에 방해가 되는 요소도 있었다. 그러나 대순사상의 의례는 기도나 공부, 치성과 같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많은 부분들이 일반적인 사회의 통례를 따름으로써 시대상황에 적합하고 유연한 예를 실천할 수 있다. 특히 상제께서는 “모든 일에 외면수습을 버리고 음덕에 힘쓰라. 덕은 음덕이 크니라.”⁶²⁾고 하였고, 머리를 깎여 고민하는 종도에게 “나는 오직 마음을 볼 뿐이로다. 머리와 무슨 상관하리오.”⁶³⁾라고 하신 바 있다. 이처럼 대순사상에서는 외면적 형식인 예보다 내면적 마음가짐을 더 중시한다는 점에서 의례를 지나치게 강조했던 주자학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주자학의 수양론은 일상의 일과 도리를 탐구하는 소학(小學)공부에 의거해 대학(大學)공부가 이뤄진다. 소학 과정에서 거경공부가 견고하고 오래되면 대학 과정에서는 격물치지를 통해 고원한 이치를 탐구할 수 있다. 그래서 주자는 “반드시 하학(下學)해야 비로소 상달(上達)할 수 있다.”⁶⁴⁾라고 하였다. 즉, 구체적 사물과 가까운 일상에서 도리를 익히고 탐구해야 형이상학적 원리인 천리를 깨우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때 대학공부의 과정에서 특히 중시된 것이 성인의 언설을 기록한 사서와 오경 등에 대한 독서이다. 인간의 경험에는 한계가 있고 견문이 좁지만, 책은 경험이 많고 견문이 넓은 성인들이 쓴 것이다. 그래서 독서는 먼저 천리를 체득한 성인들의 심법(心法)과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간주되었다.

61) 같은 책, pp.15-16.

62) 『전경』, 교법 2장 18절.

63) 같은 책, 교법 2장 11절.

64) 『朱子語類』, 권44-89, 『論語26』, “須是下學, 方能上達.”

대순사상에서도 진리와 이치에 대한 탐구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도전님께서 “우리 공부는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야 하는 공부이니 먼저 상제님의 진리를 완전히 앎으로써 믿음이 확고해질 것이며 안심, 안신이 될 것입니다.”, “이 확고한 믿음을 위해서는 진리 파악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⁶⁵⁾라고 하신 바 있다. 수행의 근간인 확고한 믿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진리를 파악하기 위한 배움의 노력이 요구된다. 상제님께서 남기신 고견원려왈지(高見遠慮曰智)에 “이미 아는 이치로 인하여 더욱 그것을 탐구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스스로 열리게 된다(因其已知之理而益窮之 自然心自開也).”⁶⁶⁾라는 글귀가 있다. 이런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치에 대한 탐구와 학습은 단지 ‘앎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각과 확신을 통해 ‘실천의 영역’으로 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주자학에서 학문의 척도가 성인의 경전과 사사물물에 내재된 천리였다면 대순사상에서는 상제님의 언행과 도의 법방이 수행의 준거가 된다. 특히 대순사상은 『전경』을 근본으로 이해되어지는데, 대순진리를 신앙하는 이들에게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상제님에 대한 기록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가 음양이고 이치이며, 경위와 법이므로 대순진리가 언설과 문자의 기록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도인들은 일상 자신을 반성하며 과부족이 없는가를 살펴 고쳐 나가고, 인륜을 바로 행하며 일상의 도리를 탐구한다. 이런 점들은 주자학이 ‘하학이상달(下學而上達)’에 입각해 비근한 일상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도리와 이치를 탐구하는 것과 유사한 면이 있다. 하지만 주자학의 격물치지는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세계 전체에 흐르는 ‘리’를 탐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내면에 수렴함으로써 천리와의 합일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마음의 수양과 함께 공리와 독서 등의 지적인 방법에 의해 기질을 변화시켜 수양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반면

65) 「도전님 훈시」, 『대순회보』 4호 (1986), p.2.

66) 『전경』, 제생 43절.

대순사상은 교리에 대한 지적이 이해와 더불어 상제님에 대한 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도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법방, 특히 주문에 의한 수행을 함으로써 신인이 조화하고 합덕한 가운데 수심연성하고 세기연질하여 인간 본래의 청정한 본질을 회복코자 한다는 데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주자학은 『대학』의 격물치지와 함께 스스로 속이지 않는 성의(誠意: 毋自欺)를 자기 수양의 으뜸으로 삼았다. 그래서 군자는 홀로 있을 때 그 기미를 살피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는 신독(慎獨)을 중시한다. 대순사상의 생활윤리인 훈회와 수칙에는 인성 회복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조목이 있다. 그것은 바로 훈회의 첫 번째인 “마음을 속이지 말라.”와 수칙의 세 번째인 “무자기는 도인의 옥조(玉條)니…”라는 구절이다. 대순사상에서 무자기(無自欺)를 수행의 핵심적인 요소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자학과 유사한 면이 있다. 또한 상제께서 “죄가 없어도 있는 듯이 잠시라도 방심 말고 조심하라.”⁶⁷⁾고 하신 말씀은 『대학』의 신독을 연상케 한다. 하지만 대순사상은 모든 인간이 상제님 주재하에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크고 작은 일을 천지의 귀(鬼)와 신(神)이 살피고 있다고 본다. 도전님께서서는 도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여 암실기심(暗室欺心)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신 바 있다.⁶⁸⁾ 따라서 무자기가 자기 마음의 기미를 살피 바름을 간직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주자학과 대순사상 모두 ‘자율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대순사상은 양심의 가책이란 내면의 규범뿐만 아니라 신도(神道)에 의한 신명의 수찰과 심판이란 교리적인 자각에 입각해 있다는 점에서는 ‘타율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주자학에서 공부의 목적과 순서는 『대학』의 경1장에 잘 드러나 있다. 팔조목 가운데 ‘격물’에서 ‘수신’까지가 수기(修己)의 과정이라면 ‘제가’부터 ‘평천하’까지는 치인(治人)의 과정이다. 주자는 “명덕이 본(本)이고 신민이 말(末)이며, 지지(知止)가 시(始)이고 능득(能得)이 중

67) 『전경』, 교법 1장 36절.

68) 『대순지침』, p.28.

(終)이다. 본과 시는 먼저 해야 할 바이고, 말과 종은 뒤에 해야 할 바이다.”⁶⁹⁾라고 하였다. 이처럼 주자 수양론은 먼저 자신의 본성을 밝히는 수기의 과정을 거쳐 가족과 사회, 국가로 나아가는 치인의 공부를 통해 요순의 도가 실현되는 이상사회를 꿈꾸었다. 대순사상의 수행은 주자학과 마찬가지로 먼저 자신의 언행과 처신을 바르게 잡은 후 포덕과 교화에 종사하여 목적인 바를 이루고자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자학처럼 오랜 세월 동안 거경과 궁리의 공부를 통해 마음의 안정과 사물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얻은 후에야 타인의 구제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순진리회 도인들은 비록 도를 완전히 알고 자기 수양이 성현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상제님에 대한 믿음과 참된 정성만 있으면 덕화에 힘입어 대순진리를 펴고 가르칠 수 있다. 이는 도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교리체계와 법방, 도전님의 유훈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주자학이 ‘자력’에 의한 공부에 의해 요순(堯舜)의 도를 실천하는 것이라면, 대순사상은 자력은 물론 상제님의 덕화(德化)와 신명의 도움이 함께하는 ‘타력’에 의해 상생대도(相生大道)를 실천한다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IV. 이상적 인간상

1. 주자학의 이상적 인간상: 성인(聖人)

주자학과 대순사상은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각각 성인과 도통군자를 상정하고 있다. 먼저 유교에서는 인격이 성숙하고 완성된 인간상을 가리켜 ‘군자’나 ‘성인’과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 군자란 본래 계급적인

69) 『大學章句』, 經1章, 朱子註, “明德爲本, 新民爲末, 知止爲始, 能得爲終, 本始所先, 末終所後.”

명칭으로 정치에 종사하던 사대부를 가리키던 개념이었으나 점차 ‘덕이 있는 사람’ 혹은 ‘도덕적 인격’을 가리키는 말로 변화되었다. 성인은 군자의 인격이 닦여져서 궁극적으로 도달하려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을 가리킨다.⁷⁰⁾ 주자 이전 북송시대의 유학자들은 학문의 목표를 성인에 두었고, 실제로 성인이 되고자 다양한 형태의 실천법과 수양법을 강구했다.⁷¹⁾ 이러한 학문적 풍토를 이어 받은 주자도 “학문의 목적은 성인이 되기 위한 것이며 이로써 목표를 삼지 않는다면 마치 갈 곳을 정하지 않고 길을 가는 것과 같다.”⁷²⁾라고 하였다. 성리학에서 인간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는 본성을 지녔지만 타고난 기질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보았다. 어린 시절 주자는 이런 차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성장하면서 기질의 차이를 극복하고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깨달았다.

주자학에서 성인은 내적으로 덕성을 함양하고 외적으로 정치적·사회적 성취를 이룬 내성외왕의 존재이다. 다른 무엇보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완전한 덕(德)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⁷³⁾ 주자는 이런 성인이 되기 위해 지향해야 할 바가 『대학』의 삼강령[明明德·親民·止於至善]에 잘 드러나 있다고 보았다. 삼강령의 첫 번째인 명명덕에서 명덕(明德)은 사람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지극한 선(善)으로서의 천명을 말한다.⁷⁴⁾ 인간이 금수와 다르고 요순과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명덕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성(性)이 아니라 허령통철(虛靈洞徹: 텅 비어 신령스럽게 훤히 꿰뚫고 있음)한 마음과 하나를 이룬 ‘성’이며, 단순한 심이 아니라 ‘성’과 하나 된 밝은 상태의 마음, 곧 본심을 말한다.⁷⁵⁾ 따라서 명명덕은 인간이 천명으로 부여받은 본

70) 이경원, 「지상신선실현-인간개조에 관한 연구」, 『대순진리학회논문집』 13 (2013), pp. 331-332.

71) 이승환, 「주자 수양론에서 성(性)과 성향」, 『동양철학』 28 (2004), p.153.

72) 『朱子大全』, 권75, 「林中中字序」, “學所以求爲聖人, 不以是爲標的, 則無所望走而之焉耳.”

73) 임종진, 「주자의 성인관」, 『대동철학』 25 (2004), p.5.

74) 『朱子大全』, 권15, 「經筵講義」, “其曰‘顧天之明命’者, 人受天地之中以生, 所謂命也, 故人之明德非他也, 即天之所以命我而至善之所存也.”

75) 황금증, 「『대학』의 공부 강목(綱目)에 대한 주희(朱熹)의 이해」, 『한국교육사학』 35

성을 온전하게 드러냄으로써 천지의 조화에 동참하고 만물의 화육을 돕는 일이 된다.

주자 수양론은 명명덕 이후 신민(新民)의 단계로 나아간다. 신민은 팔조목 가운데 제가부터 평천하까지의 단계로 수기 이후 치인에 해당하는 과정이다. 수기는 치인의 전제조건이며 수기의 강령을 중화(中和)라 한다. ‘성’의 본래 상태가 중(中)이고 마음이 발한 ‘정’의 본래 상태가 화(和)이다. 그리고 수양을 통해 이런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치중화(致中和)라 한다.⁷⁶⁾ 주자학에서 수기에 의해 치중화를 이루면 치인인 신민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신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명덕을 밝힌 후 남의 명덕을 밝힌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만사만물의 일을 ‘리’에 알맞게 처리한다는 뜻이다.⁷⁷⁾ 이렇게 신민은 수기를 토대로 가정과 사회 및 국가 구성원들의 명덕을 밝히며 다스리는 과정이 포함된다. 이때 제가는 효(孝)·제(弟)·자(慈)의 실천을 중심으로 가정의 구성원을 다스리는 것이고, 치국과 평천하는 여기에 서(恕)와 혈구지도(絜矩之道)⁷⁸⁾의 원리를 더해 상하사방의 모든 사람이 바라는 바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성인이 추구하는 이상세계는 『대학』에서 신민 이후의 단계로 제시된 지어지선(止於至善)에서 완성된다. 지선(至善)은 사리(事理)의 마땅한 극(極)으로, 명명덕과 신민이 지선의 경지에서 옳가지 않는 것이다. 반드시 그 천리의 극치를 다하고 일호(一毫)라도 인욕의 사사로움이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⁷⁹⁾ 지어지선은 명명덕과 신민의 일이 사적 작위의 차원이 아닌 천리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강령이다. 이것은 곧 명

(2013), p.215.

76) 변원중, 『주자학의 형성과 논변의 사유구조』, pp.154-155.

77) 황금중, 「주자의 공부론 연구」, pp.103-104.

78) 여기서 혈(絜)은 헤아림이고, 구(矩)는 반듯하게 만드는 도구의 의미를 지니므로, 혈구(絜矩)의 표면적인 뜻은 ‘반듯하게 만드는 도구로서 이리저리 재는 것’이다. 그런데 주자는 혈구를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해석해 통치자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 비추어 사람들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황금중, 『『대학』의 공부 강목에 대한 주희의 이해』, pp.237-238.

79) 『大學章句』, 經1章, 朱子註, “至善則事理當然之極也. 言明明德新民, 皆當止於至善之地而不遷, 蓋必有以盡夫天理之極, 而無一毫人欲之私也.”

명덕과 신민의 표준이자 목적이 되는 것으로, ‘리’의 정미함이 지극한 경지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⁸⁰⁾ 주자학의 이상적 인간상인 성인은 지어지선의 경지에서 요·순·우 삼대의 정치를 행하고, 인간을 둘러싼 자연환경과도 조화를 이룬 대동사회(大同社會)를 실현코자 하였다.

2. 대순사상의 이상적 인간상: 도통군자(道通君子)

상제께서 “도는 장차 금강산 일만이천 봉을 응기하여 일만이천의 도통군자로 창성하리라.”⁸¹⁾라고 하신 적이 있다. 여기서 도통군자는 대순사상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마음을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하게 닦아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한 사람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경』에는 ‘혈식천추도덕군자(血食千秋道德君子)’란 표현이 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제사를 받아온 도(道)와 덕(德)이 높은 군자란 뜻이다. 상제께서는 그 군자신(君子神)이 혈식천추하여 만인의 추앙을 받음은 모두 일심(一心)에 있다고 하셨다.⁸²⁾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진실한 마음을 간직한 채 도덕을 닦아온 사람이 바로 대순진리회의 도통군자이다.

도통군자는 정신개벽에 의해 무자기를 이루고 인간개조에 의해 지상신선(地上神仙)을 실현한 사람이다. 여기서 정신개벽이란 자신의 이익과 영화를 위해 남을 속이고 남과 다투는 상극(相克)의 정신에서 벗어나,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며 남을 잘 되게 하려는 상생(相生)의 정신으로 변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변화는 상제께서 대순하신 진리에 나의 심신이 부합하도록 일심으로 수도하는 데 달려 있다. 상제님의 말씀은 항상 마음에 새겨 언행과 처사가 일치되게 생활화하고,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종교적 법리를 실천 수행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상제님

80) 황금중, 『『대학』의 공부 강목에 대한 주희의 이해』, p.241.

81) 『전경』, 예시 45절.

82) 같은 책, 예시 50절.

의 덕화에 힘입어 내 마음이 거울과 같이 맑고 깨끗해져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정신개혁에 의한 무자기의 실현이다.

이러한 정신의 변화와 함께 기질적인 변화까지 가져오는 것을 인간 개조라 하고, 신인이 조화하고 합일하여 궁극적인 경지에 이른 것을 지상신선이라 한다. 도전님께서 “도통은 신명이 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은 바르게 닦은 사람에게 응하게 됩니다. 바르게 닦는다는 것은 마음을 유리알같이 맑고 깨끗하게 닦아 일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⁸³⁾라고 하셨다. 이러한 말씀처럼 일심이 되기 위해서는 대순진리를 바르게 수행하여 ‘도즉아(道卽我) 아즉도(我卽道)’의 경지에서 활연관통해야 한다. 그러면 천지신명과 조화하고 합일한 가운데 신인의 의도(神人依導)의 이법(理法)에 따라 인간개조와 지상선선이 실현되고, 더 나아가 세계개혁에 의한 지상천국의 건설이 가능해지는 것이다.⁸⁴⁾ 이러한 세상에서는 선천의 모든 원울과 탐음의 번뇌와 상극에 따른 재해가 사라지고 오직 서로 생(生)하기만 하는 상생의 진리가 전개된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신과 인간은 물론 인간을 둘러싼 모든 자연 환경과도 조화하고 화합하여 상서(祥瑞)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이 도래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순사상의 이상적 인간상인 도통군자는 신인상합(神人相合)에 의해 모든 인류와 신명이 영원해 온 이상세계를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의 주역인 것이다.

주자학과 대순사상의 성인과 도통군자는 모두 윤리도덕을 숭상하고 인간 본성인 명덕과 양심을 회복하고자 하며, 수신을 근본으로 천지의 조화와 화육에 동참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또한 기질의 제약을 극복한 성인은 자신의 명덕을 타인에게 밝히는 신민의 과정, 즉 수기치인을 통해 유가의 이상인 왕도정치(王道政治)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

83) 「도전담 훈시」, 『대순회보』 35 (1993), p.2.

84) 『전경』, 교운 2장 42절. 도주님께서 남기신 「음양경」에 의하면, 음양(陰陽)의 관계인 신명과 인간이 조화(調和)를 이루면 만사가 이뤄지고, 이들이 서로 합덕하면 백공(百工)이 성사된다. 그뿐만 아니라 신인이 상합하고 상통한 연후에야 천도(天道)와 지도(地道), 신사(神事)와 인사(人事)가 모두 성공할 수 있다.

에 의해 인류가 바로 서고 모든 사람이 한 가족처럼 화목하게 지내는 대동사회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도통군자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하지만 주자학의 명덕덕(明明德)은 인간 본성을 회복하고 도심으로 인심을 주재함으로써 그 명덕과 인(仁)의 정신을 구현코자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대순사상의 무자기와 정신개벽은 양심을 회복하여 도심을 드러내는 데만 머무르지 않는다. 삼강오륜을 실천하며 인도(人道)를 바로 세워나감은 물론 기도와 수련, 공부와 같은 법방에 의한 수행을 함으로써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동참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해원·보은 양 원리에 의한 상생의 법리를 실천하여 선천의 상극에 따른 신계와 인계의 원들을 풀어나간다. 이로 인해 상극에 지배되어 진멸할 지경에 이르렀던 세계는 오직 서로 생(生)하기만 하는 상생세계로의 극적인 변화를 맞게 되는 것이다.

주자학에서 성인은 자신의 명덕에 기반을 두고 교화와 덕치를 베풀으로써 타인의 명덕을 밝혀나간다. 이렇게 자기 내면의 덕성(德性)에 기반하여 타인을 선도(善導)하고, 그것을 가정과 사회, 국가로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대순사상의 도통군자와도 유사한 면이 있다. 하지만 도인들은 포덕과 교화 시 자신의 덕성에만 의지해 도(道)를 전하지는 않는다. 주자학과 달리 상제님의 덕화(德化)와 신명의 도움이 함께 하는 가운데 타인의 본성을 밝히고 천지공사에 동참할 길을 열어준다. 또한 주자학의 성인은 인도(人道)를 바르게 수행함으로써 지극한 덕치(德治)가 행해지는 세계를 추구하므로, 그 영향력은 주로 인사의 범위에만 한정되어 나타났다.⁸⁵⁾ 반면 대순사상의 도통군자는 상제께서 베푸신 상생의 법리에 의한 수행을 함으로써 천·지·인 삼계의 개조에 두루 참여하고 후천선경을 열어갈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도통군자는 천지공사에 참여하여 물질문명과 자연환경이 완전히 새로운

85) 『中庸章句』, 1章, 朱子註, “蓋天地萬物, 本吾一體, 吾之心正, 則天地之心亦正矣, 吾之氣順, 則天地之氣亦順矣.” 『중용』의 주자주(朱子註)에 유학에서도 천지만물이 나와 일체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르게 가지면 천지도 바르게 된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관념적인 표현일 뿐 실제로는 성인의 덕치(德治)가 인간과 자연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차원으로 도약하는 신천지(新天地)를 창조하고, 후천선경을 다스리는 주체로 거듭나게 된다는 점에서 그 고유한 특질이 있다고 하겠다.

V. 맺는말

이 논문은 대순사상의 수양론이 가진 고유한 특질을 이해하기 위해 유교의 대표적 학문인 주자학과의 비교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주자학과 대순사상의 수양론이 가진 특성을 수양의 근거와 방법, 목적이란 측면에서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주자학에서 우주의 본체론적 규정인 이기론은 수양의 근거와 원리를 제공하고, 심성론은 수양의 주체인 마음의 구조와 기능을 드러내어 현실적 인간의 공부를 가능케 한다. 주자 수양론에서 거경이 마음의 수양을 통해 명덕을 밝히기 위한 공부라면, 격물치지는 사물의 이치를 궁구함으로써 내 마음의 전체대용을 밝히려는 공부이다. 주자학은 이러한 공부를 통해 천인합일을 이룬 성인의 경지에 이르러 태평성대를 실현하고자 한다.

대순사상은 인간의 몸으로 강세하신 상제께서 상극에 지배되어 진멸지경에 이른 세상을 구하고자 천지공사를 행하시며 전무후무한 진리의 도(道)를 펼치신 데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진리는 종통을 계승하신 도주님에 의해 도법(道法)으로 체계화되어 오늘날 대순진리회 수행의 근간이 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 마음은 천·지·인이 쓰고 신명이 드나들며 용사하는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일신(一身)의 주재이자 우주의 중심인 심체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이 마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신조의 사강령과 삼요체이다. 대순사상은 신조에 의해 정신개벽과 인간개조를 이룬 도통군자들이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을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자학과 대순사상은 수양의 형이상학적 근거로서 천(天)과 심(心)

을 상정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천’을 본체로 삼고 있지만 주자학이 이법천으로서 ‘일리(一理)’이자 ‘태극’을 본체로 삼고 있다면, 대순사상은 인격천이신 상제님과 이법천인 ‘대순’과 ‘원’, ‘무극’, ‘태극’을 본체로 삼고 있다. 주자학이 자신의 본성을 밝히고 개별 사물의 ‘리’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인간완성에 이르고자 하는 데 비해 대순사상은 태극을 주재 관령하시는 상제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대순진리를 실천 수행함으로써 자기완성을 이루고자 한다. 주자학과 대순사상 모두 심신의 유기적인 상관관계 속에서 수양의 주체를 ‘마음’으로 본다. 주자학에서 이 마음은 본질적으로 순선하며 도리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성적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대순사상에서 마음은 이성적 주체일 뿐만 아니라 모든 수행이 상제님에 대한 신앙에 기반하여 이뤄진다는 점에서 ‘신앙적 주체’라고 하겠다. 또한 주자학은 마음이 ‘성’과 ‘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재 능력이 있어서 마음의 전체대용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대순사상에서 마음은 신인이 조화하고 합덕하여 만사를 이루어내고, 우주의 중심으로서 천지공사에 이바지하는 심체(心體)로서의 위상을 지닌다는 데 특질이 있다.

수양의 방법에서 주자학의 거경·격물치지와 대순사상의 사강령·삼요체를 비교해 보았다. 첫째 주자학의 거경과 대순사상의 안심·안신은 마음이 사리사욕에 사로잡히지 않아 안정되고 전일한 상태를 추구한다는 점과 언행과 처사에 있어서 인륜을 바로 행하고 예법을 실천코자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하지만 대순사상에서는 외면적 형식인 예보다 내면적인 마음가짐을 더 중시한다는 점에서 주자학의 의례 중시적인 태도와는 차이가 있다. 둘째, 격물치지는 가까운 일상의 도리와 성인들이 남긴 경전을 통해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천리와 내 마음의 전체대용을 밝히려는 공부이다. 대순사상의 수행 또한 교리 체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주자학과 유사한 면이 있다. 다만, 주자학은 궁리와 독서 등의 지적인 방법에 의지해 기질의 변화와 성품의 도야를 추구한다. 반면 대순사상은 교리에 대한 지적인 이해와 더불어 상제님에 대한 신앙에 입각하여 법방을 수행함

으로써 인간 본래의 청정한 본질을 회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주자학과 대순사상은 가까운 일상의 일들로부터 사리(事理)를 탐구하면서 자기 수양에 의해 활연관통의 경지에 이르려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주자학은 사사물물에 담긴 ‘리’와 함께 성인들이 남긴 사서, 오경 등을 준거로 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독서를 대단히 중시한다. 반면 대순사상은 상제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전경』과 도법(道法)을 수행의 준거로 삼고 이를 실천하는 데 역점을 둔다. 넷째, 주자학과 대순사상은 모두 마음을 속이지 않는 무자기를 자기 수행의 으뜸으로 삼고 있다. 주자학은 자기 내면에 대한 성찰과 신독에 의한 무자기를 실천하므로 자율적인 수행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대순사상은 내면적인 자기반성은 물론 상제님에 대한 외경과 신명의 수찰까지 고려하므로, 자율성과 타율성이 겸해지는 수행법이라 하겠다. 다섯째, 주자학은 자신의 본성을 밝히는 수기를 토대로 가족과 사회, 국가로 나아가는 치인에 의해 요순의 도가 실현된 세상을 추구한다. 이때 자력(自力)에 의한 공부(工夫)는 주로 인사(人事)의 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대순사상 또한 자기 수양을 기반으로 타인에 대한 교화와 포덕을 행한다. 하지만 주자학과 달리 자력에만 의지하지 않고 상제님의 덕화와 신명의 도움이 함께하므로 타력(他力)이 더해진다. 이로 인해 그 영향력은 인사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천지(天地)까지 두루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주자학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수양의 목적에서 주자학과 대순사상은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각각 성인과 도통군자를 상징하고 있다. 성인이 윤리도덕을 수행하여 인간 본성을 회복하고, 그 명덕을 가정과 사회, 국가로 확대하며 천지의 조화와 화육에도 동참한다는 점에서는 도통군자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성인은 어디까지나 수기치인에 의해 선정(善政)을 베풀으로써 태평성대를 구현하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도통군자는 상생의 정신에 입각하여 광구천하와 광제창생의 대의(大義)를 실현코자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덕성뿐만 아니라 상제님의 덕화를 선양하고, 상생의 법리에

의해 선천의 원들을 풀어나감으로써 상극이 없는 도화낙원(道化樂園)을 이룩하게 된다. 그 결과 후천에서는 인존시대를 맞이한 도통군자들이 무소불능의 권능을 가지고 창생들을 법리에 맞게 다스려 나간다는 점에서 성인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인간상이라 하겠다.

주자학과 대순사상은 모두 천명으로 부여된 인간 본성의 실현을 통해 자신은 물론 타인과 사회를 천도(天道)에 부합하는 세계로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각 고유의 수양론을 전개해 왔는데, 주자학은 인간 자신의 주체적 노력인 덕성의 함양과 공리에 의해 자신과 사회를 변화시킴으로써 인륜이 바로 서고 자연과도 조화된 대동사회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주자의 이상은 후대의 학자들에게도 전해졌지만, 역사 속에서 그것이 온전히 실현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인간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노력만으로 기질의 제약을 극복하고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설령 자신이 그러한 경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가정과 사회, 국가의 구성원들의 명덕을 밝히지 못한다면 유교의 이상사회 건설이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순사상은 인신으로 강세하신 상제께서 상극에 지배된 선천의 도수(度數)를 뜯어고치시고 수천 년간 누적된 원으로 진멸지경에 이른 세상을 바로 잡으려 행하신 천지공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상제께서 새롭게 짜놓으신 도수는 신계의 혼란을 바로 잡음으로써 인사가 저절로 풀어지는 상생의 법리이다. 상제님의 유지(遺志)에 따라 천지공정(天地公庭)에 참여한 도인들이 이러한 진리를 수행함으로써 상극에서 상생세계로의 극적인 전환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대순사상의 수행은 상제님의 천지공사와 도수의 흐름 속에서 전개되는 유일무이한 법방이므로, 그 영향은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정과 사회, 국가 및 신명계 더 나아가 우주 전체까지 두루 미치게 된다. 따라서 대순사상의 수행은 일신(一身)의 성패를 떠나 모든 인류와 신명, 천지와도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니는 의의는 필설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교무부, 『전경』 13판,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지침』,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2.
-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2.
- 대순진리회교무부, 『포덕교화기본원리』,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75
- 대순진리회교무부, 『포덕교화기본원리』 II,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3.
-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회보합본집』 I,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2.
-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회보합본집』 II,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8.
- 『훈시』
- 『道憲』 (1985)
- 『呪文』, 서울: 대순진리회 수도부.
- 朴景浩, 『太極道通鑑』, 부산: 태극도본부, 1956.
- 『朱子語類』
- 『朱子大全』
- 『性理大全』
- 『大學或問』
- 『大學』
- 『中庸』
- 『論語』
- 『孟子』
- 『書經』
- 『小學』
- 김교빈, 「본체론과 심성론을 통해 본 주자의 격물치지이해」, 『동양철학연구』 6, 1985.
- 김영주, 「대순진리회 마음공부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 43, 2013.
- 김우형, 『주희철학의 인식론』, 서울: 삼산, 2005.
- 나권수, 「대순진리회의 이상사회론 연구」, 『대순사상논총』 21, 2013.
- 노길명, 「대순사상에서의 경천·수도의 의미와 성격」, 『대순진리학술논총』 7, 2010.
- 勞思光, 『중국철학사』 古代篇, 정인재 역, 서울: 탐구당, 1991.
-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대순종교사상』,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 대순종학교재연구회, 『대순사상의 이해』, 포천: 대진대학교 출판부, 2001.
- 대순진리회 연구위원회 편집, 『대순논집』,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2.

- 류병무, 「성경신의 의미 고찰」, 『대순사상논총』 22, 2014.
- 박광수, 「경천(敬天, 수도(修道)의 의미와 실천방법」, 『대순진리학술논총』 7, 2010.
- _____, 「성경신(誠敬信)의 원리와 통합적 실천윤리」, 『대순진리학술논총』 11, 2012.
- 박미라, 「중국 유교의 이상 인간형-성인과 군자를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7, 2001.
- 박종하, 「주자의 본체관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 방립천, 『문제로 보는 중국철학』, 이기훈 외 역, 서울: 예문서원, 1997.
- 변원중, 『주자학의 형성과 논변의 사유구조』, 과주: 한국학술정보, 2007.
- _____, 『주자학과 육왕학』, 과주: 한국학술정보, 2008.
- 송봉구, 「주자의 거경에 관한 연구」, 『유교사상연구』 21, 2004.
- 안유경, 「대순사상의 성경신에 대한 종교적 해석」, 『대순사상논총』 22, 2014.
- 양연, 「대순진리회 수도 요체와 심신 수양」, 『대순사상논총』 21, 2013.
- 유교사전편찬위원회, 『유교대사전』, 서울: 박영사, 1990.
- 윤사순, 「유교의 ‘천인합일(天人合一)’사상에 대한 현대적 해석」, 『유교문화연구』 18, 2011.
- 윤재근, 「대순진리회와 인존(人尊)사상」, 『종교교육학연구』 2, 1996.
- 이강대, 『주자학의 인간학적 이해』. 서울: 예문서원, 2000.
- 이경원, 「대순사상의 수양론 연구」, 『한국종교사연구』 8, 2000.
- _____, 「성·경·신과 대순수양론 연구」, 『대순사상논총』 12, 2001.
- _____, 「대순사상의 심체론(心體論) 연구」, 『신종교연구』 6, 2002.
- _____, 『대순진리회 신앙론』, 서울: 문사철, 2012.
- _____, 『대순진리회 교리론』, 서울: 문사철, 2013.
- _____, 「지상신선실현-인간개조에 관한 연구」, 『대순진리학술논총』 13, 2013.
- 이광률, 「주자철학에 있어 ‘敬·知·行’ 공부의 구조적 이해」, 『법한철학』 31, 2003.
- 이상돈, 『주자의 수양론』, 서울: 문사철, 2013.
- _____, 「주회 수양론에서 함양(涵養)과 체인(體認)」, 『동방학지』 143, 2008.
- 이상익, 『주자학의 길』, 서울: 심산, 2007.
- 이승환, 「주자 수양론에서 성(性)과 성향」, 『동양철학』 28, 2004.
- 임종진, 「주자의 성인관」, 『대동철학』 25, 2004.
- 장원목, 「성리학 본체론의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22, 2003.
- 전목, 『주자학의 세계』, 이완재 외 1명 역, 대구: 이문출판사, 1989.
- 전병욱, 「주자 인론 체계와 공부론의 전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 정지윤, 「대순진리회 수행의 실제」, 『신종교연구』 30, 2014.
- 조성열, 『『논어』, 『맹자』에 나타난 군자/소인, 대인/소인 연구』, 『철학논구』

34, 2006.

- 조원일, 「맹자의 성인관 연구」, 『한국철학연구』 35, 2012.
- _____, 「공자의 성인관 연구」, 『동서철학연구』 67, 2013.
- 조용기, 「대순사상의 수양론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 차선근, 「대순진리회 수행 연구의 경향과 과제」, 『대순사상논총』 24-1, 2014.
- 최정락, 「다산 정약용의 상제사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 최정묵, 「『中庸』에 나타난 천인일관(天人一貫)의 사유구조」, 『동서철학연구』 50, 2008.
- _____, 「『대학』의 삼강령 팔조목을 통해 본 유학의 세계」, 『동서철학연구』 62, 2011.
- 태극도 교화부, 『태극도안내서』, 부산: 태극도본부, 1966.
- 한국고전용어 편찬위원회, 『한국고전용어사전』 5,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 한국철학사연구회, 『주자학의 형성과 전개』, 서울: 심산, 2005.
- 홍성민, 「주자 수양론의 구조와 실천적 성격」,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 황금중, 「주자의 공부론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 _____, 「주자의 공부론의 형성과정과 문제의식」, 『한국교육사학』 31, 2009.
- _____, 「『대학』의 공부 강목(綱目)에 대한 주희(朱熹)의 이해」, 『한국교육사학』 35, 2013.
- 황의동, 「대순진리회의 유교적 이해」, 『대순사상논총』 20, 2009.
- 황종원, 「대순진리와 동학의 성, 경, 신 비교 연구」, 『대순진리학술논총』 8, 2011.

▪Abstract▪

The Comparative Research on the Theory of Self-cultivation in Neo-Confucianism and Daesoon Thought

Lee Gwang-ju

Division of Cultural Affairs, Daesoonjinrihoe

This thesis examined Chu Hsi's self-cultivation theory as the representative theory of cultivation in Confucianism, while juxtaposing it to self-cultivation theory in Daesoon thought, concentrating on its similarity and difference. Neo-Confucianism is a scholarship which has wielded a tremendous influence upon East Asia, while functioning as an official scholarship for long period up to Yuan, Ming, and Ching period, after achieving its synthesis by Chu Hsi. After 13th century, Neo-Confucianism has been a representative academic system in Confucianism, and self-cultivation theory was in its center. It suggested various virtues that classical scholars have to equip to fulfill the sainthood and the politics of royal road. The self-cultivation theory of Chu Hsi was developed upon the basis of the theory 'Li-Qi' and the theory of mind. Here, the practice of Geokjung(morally awakened state with a reverent spirit in every moment) and Gyeokmul-tsiji(reaching into the utmost knowledge through investigation of things) formed a nucleus of Chu Hsi's self-cultivation theory. While Geokjung was to reveal one's true nature

through cultivation of mind, Gyeokmul-tsjji was to demonstrate the complete use of mind's essence and function. Chu Hsi's self-cultivation theory attempted to realize the unity of heaven and man, and through cultivating self and governing people, it also tried to achieve its ideal of the society of Great Union(Daedong).

Daesoon Thought is originated from Sangjenim who has descended to this world as a human being called Jeung-san. He went on his circuit to rectify the disorder of heaven and earth for 9 years to rectify the Three worlds of heaven, earth and human being which were faced with total annihilation due to its rule of mutual conflict, while creating an earthly paradise. Respecting the will of Sangjenim, Dojunim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Do through launching 'Meukeukdo' and setting tenet, creed and object so that the cultivators (Doins) could believe and respect the truth of Sangje's great itineration (Daesoon). Among those, the two components of creed, which are four fundamental principles and the three fundamental attitudes are of great account as precept and cardinal point. Through this means, the cultivators of Daesoonjinrihoe aspire to guard against self-deception through transforming the human spirit, to realize earthly immortality through renewing human beings, and to create an earthly paradise through transforming the world.

This thesis attempt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theory of self-cultivation in Neo-Confucianism and Daesoon Thought in the aspect of ground, method, and object of cultivation. First, as for the ground of cultivation, the doctrines of Chu-tzu and Daesoon thought place the essence of cultivation on 'heaven'. Yet, whereas the former postulates Taekeuk (the Great Ultimate) as a principle as well as the heaven of a natural order, Daesoon thought postulates Sangjenim as the heaven of superintendence as well as the heaven of a natural

order, signified as its equation of Daesoon with circle, along with the unity of Meukeuk (Endlessness) and Taegeuk (the Great Ultimate). Further, the doctrine of Chu-zhu and Daesoon thought is identical in the point that both thoughts see mind as the subject of cultivation, while trying to restore a pure essence. Nevertheless, whereas Neo-Confucianism intends to give scope to ability of the complete use of mind's essence and function, Daesoon Thought sees mind as the essence which is used by spiritual beings and as an organ that heaven, earth and human being rely upon as the center of the universe.

In the aspect of method of cultivation, the doctrine of Chu-zhu lays emphasis on the rational factor in that it brightens its 'myung-deoki'(bright inner virtue),' while trying to correspond to the law of heaven on the basis of 'Geokyung' and 'Gyeokmul-tsiji.' On the contrary, Daesoon thought lays much emphasis on faith factor in that it aspires for human perfection based on the restoration of conscience by cultivating Daesoonjinri with sincerity, reverence and faith along with 'quieting the heart-mind', 'quieting the body', 'respecting the God of the Ninth Heaven', and 'observing ritual practice on the basis of the faith in Sangjenim.

Yet, both thoughts have similarities in that cultivation of body forms the basis and that they attempt to realize their ideals through cultivation in daily life while taking 'Guarding against self-deception' as the key method of self-cultivation.'

However, the principle of Chu-zhu can be said to be a voluntary and autonomous practice based on scripture of the saint as well as self-reflection. On the other hand, Daesoon thought reveals certain difference in that it combines faith factor with one's self-effort by concentrating on cultivation under the presence of Sangjenim as the object of belief and the spirits of heaven and earth.

In the aspect of object of cultivation, both thoughts share similarities in that the saint and the perfected gentleman with a moral virtue as an ideal image of men in both thoughts attempt to realize each of their 'myung-deok' in human nature as a heavenly mandate while respecting morality. Further, they also share similarity in the point that the desirable characters in both thoughts want to participate in harmonious creation and nurturance. Yet, the perfected gentleman with a moral virtue is also characterized by its aim for a new heaven and earth where there is no mutual conflict but mutual beneficence, by promoting the moral influence and virtue of Sangjenim over one's own virtue, while practising the mutual beneficence of all life through harmonious union of divine beings and human beings.

Key words : Daesoon Thought, Chu-zhu Thought, self-cultivation, Sangjenim, Geokyeong (morally awakened state with a reverent spirit in every moment), Gyeokkmul-tsiji (reaching into the utmost knowledge through investigation of things), The four fundamental principles, The three fundamental attitudes, The unity of heaven and man, Cultivating self and governing people, Heaven, heart-mend, Saint, The perfected gentleman with a moral virtue

◎ 투 고 일 : 2015년 4월 20일

◎ 심 사 기 간 : 2015년 4월 28일~5월 3일

◎ 계 재 확 정 일 : 2015년 5월 21일